

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,
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, 진보네트워킹센터,
참여연대,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

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·사회부
발 신 추혜선 국회의원 보좌관 김하늬(010-7494-7030),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(서채완 변호사 02-522-7284), 민주노총(우문숙 정책국장 010-5358-2260), 진보네트워킹센터(희우 활동가 02-774-4551), 참여연대 (김은정 팀장 02-723-5052)
제 목 [보도협조요청]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,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
날 짜 2019. 11. 22. (총 2 쪽)

보도협조요청

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,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

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
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

일시 장소 : 2019.11.25(월)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

1. 취지와 목적

-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5일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(김병욱의원 대표발의)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. 지금도 은행, 카드, 보험, 유통업체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유출사고나 보이스피싱 등의 관련범죄가 끊이지 않는데,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.
- 한편,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여 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(김종석 의원 대표발의)이 어제(11/21)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. 2018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센 우려와 반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법 시행 일 년도 되지 않아 국회가 내팽개친 것입니다.

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,
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, 진보네트워킹센터,
참여연대,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

- 이에 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의 졸속 통과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약에 반대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공동으로 11월 25일(월)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.

2. 개요

- 제목 : 신용정보법,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약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
- 일시 장소 : 2019. 11. 25(월) 9시 40분 / 국회 정론관
- 주최 :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, 민주노총, 진보네트워킹센터, 참여연대
 - 사회 : 추혜선 국회의원
 - 발언 1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 부위원장
 - 발언 2 오병일 진보네트워킹센터 대표 :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일원화에 역행하는 신정법안 내용
 - 발언 3 서채완 변호사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: 개보법과 신용정보법의 법체계가 중복,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
 - 발언 4 최종연 변호사,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: 연구, 통계 목적의 활용 + 부수업무로 빅데이터 분석업무 등 허용의 문제점
 - 발언 5 김보라미 변호사,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
 - 발언 6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: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이유
- 문의 : 추혜선 국회의원실 김하늬 보좌관(010-7494-7030),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(010-5358-2260)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(02-723-5052), 민변디정위 서채완 변호사(02-522-7284), 경실련(윤철한 정책실장 02-765-9731)

3.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. 끝.

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,
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, 진보네트워크센터,
참여연대,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